

# 박광태 대표 선임 고수...광주시의원들 반발

시의회,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 전문성·도덕적 자질 놓고 찬반  
본회의 대표이사 사임 촉구 목소리에 이용섭 시장은 입장 '고수'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전 광주시장) 대표이사의 선임에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박 대표이사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이용섭 시장은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다보니 예기치 않은 난재들이 있다"며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공장을 올해 안에 차질없이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이사 선임 찬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광주시로부터 주요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추진 상황을 듣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박광태 전 시장의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1시

간가량 보고를 받아야 하느냐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다가 '보고는 서류로 정리하고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광주시의회는 앞서 박 전 시장의 대표이사 선임 이후 공동 입장을 내자며 논의를 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반재신·신수정·장연주·정무장 의원 등 4명만이 박 전 시장의 선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7일 오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김동찬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표정두 열사 정신계승비' 이전 제막식

오늘 5·18기념근린공원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에서 서구 쌍촌동 5·18기념근린공원으로 옮긴 '표정두 열사 정신계승비' 이전 제막식이 18일 오전 11시 열린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장휘국 시교육감, 박상철 호남대총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개최한다. 표정두 열사 정신계승비는 호남대 학생회가 중심이 돼 지난 1991년 쌍촌캠퍼스에 세웠지만, 본교 이전으로 옛 교정에 방치됐다. 이에 광주시는 불의에 항거하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앞장선 표정두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5·18 관련

단체,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5·18기념근린공원으로 계승비를 옮겼다. 표정두 열사는 1980년 당시 대동고 학생으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정학처분을 받았다. 1983년 호남대에 입학한 뒤 미등락 제적됐지만 1987년 3월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내각제 개헌 반대", "장기집권 음모분쇄", "박종철을 살려내라", "광주시태를 책임지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 민주열사 4인을 호명하면서 표정두 열사의 업적이 재평가됐다. 호남대는 2017년 12월 표정두 열사에게 명예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유럽 순방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성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추석 연휴를 이용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올렸다. 김 지사는 지난 8일부터 그리스·러시아·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 4개국을 순방하고 이날 귀국했다. 첫 방문지인 그리스에서 1억 달러 규모의 11만5000t급 탱커 선박 2척의 수주 계약을 마무리하고, 러시아에서는 최대 과학단지인 한전공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러시아 과학첨단기술단지인 스킴코보 혁신센터를 방문, 아르카디 드 보르코비치 스킴코보 재단 이사장과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또 독일에서는 '블루 이코노미'의 전략 프로젝트인 '블루 트랜스포트' 구상을 구체화했다. 마지막 방문지 오스트리아에서는 '소속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고향인 티롤주로부터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협력과 지역 간 교류 약속을 끌어냈다. 티롤주와는 신재생에너지와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 교류를 위한 우호 교류의향서를 교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지 출항기업들과 만나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적극적인 반응을 얻어냈다"며 "순방이 실질적 성과 도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5·18 사적지 옛 적십자병원 보존해야"

광주시의원 주장...도시철도 2호선 혼잡 방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을

광주시 5·18 사적지 중 한 곳인 옛 적십자병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이흥일 시의원 이정환 시의원

행하면서 옛 적십자병원을 공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서남학원 측은 1995년 동구 불로동 광주천변 옛 지상 3층 규모의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인수해 서남대병원으로 운영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2014년 폐쇄했다. 이후 임금체불 등 1350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서남학원은 교육부로부터 재산매각 승인을 받아 옛 광주적십자병원에 대한 공개 매각을 결정했다. 5·18 사적지가 민간에 매각될 위기에 놓이자 광주시와 동구가 매입 방안을 검토했으나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의회 이정환 의원(민주·광산5)은 지하철 공사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과 부과, 징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정환 의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10년 넘게 정비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다른 도시에서는 예식장, 체육관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 현실여건에 맞춰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용자 수요를 줄여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경감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실효성 논란 속에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인식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로 했다.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3명 시의원 모두가 조례안에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모든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해당하는 전범 기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전범 기업으로 확인된 일본 기업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시,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사무처, 공사·공단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은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이나 공공 구매를 할 수 없고 보유·사용 중인 제품에 전범 기업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변정섭(60) 광주신보 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은 있지만 준비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평을 했다. 광주시의회는 1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변 후보자가 지역 금융기관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금융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의 업무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량과 자질이 있다고 평가했다.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학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철강 제조 기업에서 경영자로 일하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특위는 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재단의 수익성 개선에만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였으며 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대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준비정신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용섭 광주 시장이 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변 후보자는 1987년 광주은행에 입사해 2010년 부행장으로 승진했으며, 광은비즈니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